

# 상한문헌에 나타난 현훈의 정의와 치료법에 대한 연구

김상운<sup>1)</sup> · 정현종<sup>1,2)\*</sup>

1)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 2) 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

---

## Abstract

---

### A Research of Definition and Treatment of Dizziness in the Books on Cold Damage

Sang-Un Kim<sup>1)</sup> · Hyun-Jong Jung<sup>1,2)\*</sup>

1) Dept. of Diagnost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2) 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 Objectives

to study definition and treatment of dizziness in the books of Cold damage which are classified as symptoms of all time.

#### Methods

1. Quote provisions related to dizziness in 『Sanghanlon(傷寒論)』
2. Among the books of Cold damage which are classified as symptoms, select 19 literatures on dizziness with table of contents and collect data and categorize in two perspectives on theories and disease pattern.
3. Compare and draw a chart all data collected in above methods.

#### Results & Conclusions

1. In the books on Cold damage, dizziness is expressed in 2 ways such as head dizziness(頭眩) and fainting(鬱冒). fainting is much more several symptoms than head dizziness and it is the difference that it has mental confusion.
2. The cause of head dizziness after promoting sweating, vomiting and purgation is that source qi(元氣) of upper energizer(上焦) is deficiency, and cause of head dizziness before using method of treatment is wind(風), heat(熱), phlegm(痰), blood deficiency(血虛) and etc.
3. Main cause of fainting is that deficiency is getting severe so that cold invades, and symptoms are blood deficiency, after giving birth and excess pattern of fire and heat.
4. Remedies for head dizziness are using Yeonggyechulgam-tang(苓桂朮甘湯), jinmu-tang(眞武湯), soshiho-tang(小柴胡湯), sagunja-tang(四君子湯), samul-tang(四物湯) and etc.
5. Insamsambaek-tang(人蔘三白湯) and Sayeok-tang(四逆湯) are used for deficiency pattern of fainting, and Dojeok-san(導赤散), Daeseunggi-tang(大承氣湯), and Hwangryeonhaedok-tang(黃連解毒湯) are used for excess pattern(實證).

#### Key Words

dizziness, cold damage, fainting

---

\* 교신저자 : 정현종 / 소속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Tel : 063-850-6978 / Fax : 063-850-7324 / E-mail : kendu@wonkwang.ac.kr

투고일 : 2014년 12월 3일 / 수정일 : 2014년 12월 16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19일

## I. 서론

眩暈은 임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질환으로, '眩'은 시야에 眼花가 보이거나 검게 변하는 것을 뜻하고, '暈'은 바깥 사물이 도는 것 같아 바로 설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眩'과 '暈'이 함께 나타나므로 '眩暈'이라 통칭한다<sup>1)</sup>.

임상에서는 眩暈에 半夏白朮天麻湯이나 蒼桂朮甘湯 등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임상이나 학계에서 傷寒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송 등<sup>2)</sup>은 蒼桂朮甘湯으로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훈 환자를 치료한 임상례를 보고하기도 하였고, 『경방사용수첩』에서도 蒼桂朮甘湯으로 각종 眩暈을 치료한다고 하였으며, 眞武湯으로 메니에르 증후군을 치료한다고도 하였다<sup>3)</sup>.

하지만 국내에서 발표된 眩暈 관련 문헌 연구를 살펴보면, 설<sup>4)</sup>, 권<sup>5)</sup>, 김<sup>1)</sup>, 박<sup>6)</sup>은 한의학 중요 문헌을 검토하였으나 상한문헌은 검토하지 않거나 겨우 한 두 개만 검토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처럼 眩暈의 傷寒方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문헌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몇몇의 상한문헌을 살펴보아도 상한문헌에서는 '眩暈'이라는 용어보다 '眩', '目眩', '頭眩', '鬱冒'과 같은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의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眩暈과 관련하여 역대 상한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한서적은 크게 條文으로 분류한 서적과 症으로 분류한 서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眩暈症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문헌 범위를 症으로 분류한 서적에 한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상한문헌에 있어 眩暈의 정의를 알아보고 그 치료법의 문헌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역대 症으로 분류한 傷寒書에서 眩暈과 관련된 醫論들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상한문헌에

서 眩暈의 정의는 무엇이며, 그 原因, 病證, 處方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仲景『傷寒論』의 條文 가운데 眩暈과 관련이 있는 것을 발췌하였다.

張仲景의 『傷寒論』에 대한 諸家の 註釋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중국 宋代이다. 『傷寒論類著作存世書目』<sup>7)</sup>에 의하면 宋代에서 1999년까지 현존하는 상한문헌은 총 837 종이다. 그 가운데 20세기 이전은 309종, 19세기 이후는 528종이다. 20세기 이후는 짧은 기간에 비해 2배에 가까운 많은 문헌이 간행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문헌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해당 문헌들을 국내에서 쉽게 구해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宋代부터 20세기 이전까지 총 309종 가운데, 저자가 구해볼 수 있는 서적 症으로 분류한 상한문헌 『活人書』, 『傷寒百證歌』, 『傷寒九十論』, 『傷寒百問歌』, 『傷寒明理論』, 『仁齋傷寒類書』, 『傷寒治例』, 『傷寒明理續論』, 『傷寒全生集』,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 『醫學入門』, 『傷寒準繩』, 『傷寒補天石』, 『傷寒括要』, 『傷寒緒論』, 『傷寒辨證』, 『傷寒大白』, 『傷寒心法要訣』, 『傷寒正醫錄』, 『傷寒指掌』, 『傷寒尋源』 이상 21종을 1차 선별하였다. 이 가운데 목차에서 眩暈과 관련된 목차가 없는 문헌 『傷寒九十論』,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 2종을 배제하고, 나머지 19종을 2차 선별하였다.

이상 발췌한 仲景『傷寒論』의 眩暈관련 條文과 선별된 19종의 문헌에 나타난 眩暈과 관련된 醫論, 病證, 處方에 대해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病證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복잡한 病證들은 간단한 病證名으로 약칭하였다. 仲景『傷寒論』

의 條文에 대해서는 『傷寒論』<sup>8)</sup>과 『현대상한론』<sup>9)</sup>의 해당 條文의 概要에 의거하였으며, 그 외에 경우는 原文에 나타난 處方, 病因, 治法, 病機 등에 의거하여 약칭하였다.

### Ⅲ. 본 론

#### 1. 仲景『傷寒論』

仲景『傷寒論』에서 眩暈과 관련된 증상은 ‘眩’, ‘目眩’, ‘頭眩’, ‘眩冒’, ‘冒’, ‘鬱冒’ 6가지이다<sup>10)</sup>. 이상 6가지 단어가 들어간 條文을 『현대상한론』<sup>9)</sup>에서 아래와 같이 발췌하였다.

“太陽少陽并病, 心下鞭, 頸項強而眩者, 當刺大椎, 肺俞, 肝俞, 慎勿下之.”라하여 太陽少陽并病에 ‘眩’이 나타나면 鍼刺法을 쓰고 함부로 下法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太陽少陽并病 勿下證’이라 약칭한다.

“少陽之爲病, 口苦咽乾目眩也.”라하여 少陽病에 ‘目眩’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하여 ‘少陽病 提綱證’이라 약칭한다.

“傷寒若吐, 若下後, 心下逆滿, 氣上衝胸, 起則頭眩, 脈沉緊, 發汗則動經, 身爲振振搖者, 茯苓桂枝白朮甘草湯主之.”라하여 傷寒에 吐法이나 下法을 쓴 뒤에 水飲內停으로 ‘頭眩’이 나타나는 경우에 茯苓桂枝白朮甘草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苓桂朮甘湯證’이라 약칭한다.

“太陽病發汗, 汗出不解, 其人仍發熱, 心下悸, 頭眩, 身瞤動, 振振欲擗地者, 眞武湯主之.”라하여 太陽病에 發汗過多로 인해 水氣가 內動하여 ‘頭眩’이 나타나는 경우에 眞武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眞武湯證’이라 약칭한다.

“陽明病, 脈遲, 食難用飽, 飽則微煩頭眩, 必小便難, 此欲作穀瘵. 雖下之, 腹滿如故, 所以然者,

脈遲故也.”라하여 陽明病에 寒濕鬱滯로 인해 黃疸가 생기려할 때 ‘頭眩’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陽明病 寒濕黃疸證’이라 약칭한다.

“陽明病, 但頭眩, 不惡寒, 故能食而欬, 其人咽必痛. 若不欬者, 咽不痛.”라하여 陽明病 中風에 熱邪가 上擾하는 경우에 ‘頭眩’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陽明病 中風證’이라 약칭한다.

“少陰病, 下利止而頭眩, 時時自冒者死.”라하여 少陰病에 陰液이 고갈되고 陽氣가 없어지는 위급한 경우에 ‘頭眩’과 ‘冒’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少陰病 陰竭陽脫證’이라 약칭한다.

“太陽與少陽併病, 頭項強痛, 或眩冒, 時如結胸, 心下痞硬者, 當刺大椎第一間, 肺俞, 肝俞, 慎不可發汗. 發汗則譫語, 脈弦. 五日譫語不止, 當刺期門.”라하여 太陽少陽并病에 ‘眩冒’가 나타나면 鍼刺法을 쓰고 함부로 汗法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太陽少陽并病 勿汗證’이라 약칭한다.

“傷寒, 吐下後, 發汗, 虛煩, 脈甚微, 八九日心下痞鞭, 脇下痛, 氣上衝咽喉, 眩冒, 經脈動惕者, 久而成瘵.”라 하여 傷寒에 잘못 吐下法을 사용하고 또 汗法을 사용하면 虛證이 생기고 이것이 오래되고 심해지면 心下痞硬과 함께 ‘眩冒’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誤吐下後 發汗後 虛證’이라 약칭한다.

“太陽病, 先下之而不愈, 因復發汗, 以此表裏俱虛, 其人因致冒, 冒家汗出自愈. 所以然者, 汗出表和故也. 裏未和, 然後復下之.”라하여 太陽病에 먼저 下法을 쓴 뒤에 다시 汗法을 사용하여 表裏가 모두 虛해진 경우에 ‘冒’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太陽病 表裏俱虛證’이라 약칭한다.

“病人小便不利，大便乍難乍易，時有微熱，喘冒不能臥者，有燥屎也，宜大承氣湯。”라하여 陽明病에 燥屎로 인해 ‘冒’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陽明病 燥屎證’이라 약칭한다.

“下利，脈沉而遲，其人面少赤，身有微熱，下利清穀者，必鬱冒汗出而解，病人必微厥，所以然者，其面戴陽，下虛故也。”라하여 厥陰病의 下利에 戴陽症을 겸하고 있으면 ‘鬱冒’와 ‘汗出’이 나타나면서 병이 저절로 낫는다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厥陰病 欲解證’이라 약칭한다.

## 2. 『活人書』(1118, 朱肱)

眩暈과 관련하여 「七十一問筋惕頭眩身搖」<sup>11)</sup>를 찾을 수 있었다.

### 1) 「頭眩」

#### (1) 病證

眞武湯證, 苓桂朮甘湯證을 제시하였다. 또한 腹部 左側에 動氣가 있을 때 잘못 發汗시키면 ‘頭眩’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防風白朮牡蠣散과 建中湯을 차례로 복용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動氣誤汗證’이라 약칭한다. 여기에서 健中湯은 小建中湯을 의미한다<sup>11)</sup>.

## 3. 『傷寒百證歌』(1132, 許叔微)

眩暈과 관련하여 「第六十三證·冒悶歌」<sup>12)</sup>를 찾을 수 있었다.

### 1) 「冒悶」

#### (1) 病證

太陽少陽并病 勿汗證(鍼刺法), 厥陰病 欲解證, 誤吐下後 發汗後 虛證, 太陽病 表裏俱虛證을 제시하였다. 또한 營衛中風에 잘못하여 몸에 물을 뿌

리면 땀이 나면서 ‘冒煩’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 4. 『傷寒百問歌』(1131~1162 추정, 錢韻禮)

眩暈과 관련하여 「六十頭眩身搖筋惕肉瞤」<sup>13)</sup>을 찾을 수 있었다.

### 1) 「頭眩」

#### (1) 病證

眞武湯證, 苓桂朮甘湯證을 제시하였다. 또한 動氣誤汗證을 제시하고 防風白朮牡蠣散, 黃耆建中湯을 차례로 복용한다고 하였다.

## 5. 『傷寒明理醫論』(1156, 成無已)

眩暈과 관련하여 「頭眩第十三」과 「鬱冒第四十一」을 찾을 수 있었다<sup>14)</sup>.

### 1) 「頭眩」

#### (1) 醫論

眊는 眼花이고 眩은 眼黑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眩’, ‘運’, ‘冒’ 세 가지는 형상이 서로 비슷하다고 하였다. 眩運에서 ‘運’은 회전한다는 뜻이니 흔히 頭旋이라고 하는 것이며, 眩冒에서 ‘冒’는 가려 막아 어둡게 한다는 뜻이니, 흔히 말하는 昏迷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太陽少陽并病 勿下證 및 勿汗證에서 ‘眩’의 원인은 虛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苓桂朮甘湯證과 誤吐下後 發汗後 虛證에서 頭眩과 眩冒의 원인은 陽虛라고 하였다. 陽明病 中風證에서 ‘頭眩’의 원인은 風이 運動을 주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2) 病證

少陽病 提綱證, 太陽少陽并病 勿下證 및 勿汗證, 誤吐下後 發汗後 虛證, 陽明病 中風證을 제시

하였다. 苓桂朮甘湯證을 제시하였으나 處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 「鬱冒」

(1) 醫論

「鬱」은 울결되어 氣가 퍼지지 못하는 것이고, 「冒」은 昏冒하고 정신이 맑지 못한 것이니, 鬱冒란 흔히 말하는 昏迷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虛한 것이 심해져서 寒邪가 침범하면 「冒」가 생긴다고 하였다. 産後에 血虛로 鬱冒가 발생된다고도 하였는데, 결국 鬱冒가 생기는 이유는 虛寒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産後血虛證」이라 약칭한다.

(2) 病證

太陽病 表裏俱虛證, 少陰病 陰竭陽脫證을 제시하였다. 『金匱要略·婦人産後脈證并治』를 인용하여 産後血虛證을 제시하였는데, 産後에 出血로 血虛한 상태에서 汗을 많이 흘리고 寒邪가 침입하여 鬱冒가 발생된다고 하였다.

6. 『仁齋傷寒類書』(1260, 楊士瀛)

眩暈과 관련하여 「冒眩」<sup>15)</sup>을 찾을 수 있었다.

1) 「冒眩」

(1) 醫論

「冒」는 가려 막아 어둡게 됨을 말하고 「眩」은 眩運을 말한다고 하였다. 上虛하면 眩이 발생하고, 虛한 것이 극심해져 寒邪가 침입하면 冒가 된다고 하였다. 두 가지는 비슷하지만 「眩」은 그 정도가 가벼운 것이고 「冒」는 정도가 심한 것이라 하였다. 産後에 血虛로 冒가 생기기도 하는데, 결국 虛寒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2) 病證

少陰病 陰竭陽脫證, 太陽少陽并病 勿汗證, 少陽病 提綱證, 陽明病 中風證을 제시하였다. 誤汗過劇證을 제시하였는데 치료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誤吐下後 發汗後 虛證에 苓桂朮甘湯을 제시하였다. 厥陰病 欲解證에 理中湯, 甘草乾薑湯, 四逆湯을 輕重에 따라 사용한다고 하였다. 太陽病 表裏俱虛證을 제시하였다. 痰飲으로 인한 眩冒, 厥逆에 三生飲을 조금 준다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痰飲證」이라 약칭한다. 感濕으로 인한 頭重, 眩暈에 芎朮除眩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感濕證」이라 약칭한다. 産後血虛證을 제시하였다.

7. 『傷寒治例』(1396, 劉純)

眩暈과 관련하여 「頭眩」, 「鬱冒」<sup>16)</sup>를 찾을 수 있었다.

1) 「頭眩」

(1) 醫論

太陽少陽并病에 頭眩이 나타나는 이유는 虛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汗下法을 쓴 뒤에 眩冒가 나타나는 이유는 陽虛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鍼經』을 인용하여 上虛하면 頭眩이 생긴다고 하였다. 和解, 溫經, 吹鼻의 3가지 治法을 제시하였다.

(2) 病證

太陽少陽并病 勿下證, 太陽少陽并病 勿汗證, 眞武湯證을 제시하였다. 中風에 흔히 頭眩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陽明病 中風證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머리 속에 寒濕으로 頭眩, 鼻塞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瓜蒂散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 2) 「鬱冒」

## (1) 醫論

‘鬱’은 氣가 멎어서 퍼지지 않는 것이고, ‘冒’은 昏迷하여 정신이 맑지 못한 것으로, 흔히 말하는 昏迷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대개 虛한 것이 극심해져 寒邪가 침입해서 발생하며, 혹은 吐下法으로 인해 생기기도 한다고 하였다.

## (2) 病證

太陽病 表裏俱虛證, 陽明病 燥屎證, 太陽少陽 并病 勿汗證을 제시하였다. 吐下法을 쓴 뒤에 매우 虛해졌는데 다시 심하게 發汗시킨 경우를 제시하였으며, 이때 재차 물을 주면 이로 인해 嘔이 생긴다고 하였다.

## 8. 『傷寒明辨論』(1445, 陶華)

眩暈과 관련하여 「頭眩」<sup>17)</sup>을 찾을 수 있었다.

## 1) 「頭眩」

## (1) 醫論

少陽病은 邪氣가 表裏 사이에 있는데 表邪가 裏部로 옮겨가면 表가 陽虛 상태가 되어 頭眩이 생긴다고 하였다. 또한 汗·吐·下法 뒤에 頭眩이 생기는 것은 陽虛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少陰病 陰竭陽脫證을 설명하면서 虛한 것이 극심해서 脫證이 생긴 것이라 하였다. 風家의 頭眩은 風이 運動을 주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2) 病證

少陰病 陰竭陽脫證, 太陽病 表裏俱虛證, 眞武湯證을 제시하였다. 陽明病 中風證에 茯苓白朮甘草生薑湯으로, 少陽病 提綱證에 小柴胡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誤吐下後 發汗後 虛證에 苓桂朮

甘湯으로 치료하는데, 혹 오래되어 痿病이 된 경우에는 瓜蒌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 9. 『傷寒全生集』(1445, 陶華)

眩暈과 관련하여 「辨傷寒頭目眩例第十一」과 「辨傷寒鬱冒例第二十四」을 찾을 수 있었다<sup>18)</sup>.

## 1) 「頭目眩」

## (1) 醫論

少陽病은 邪氣가 表裏 사이에 있는데 表邪가 裏部로 옮겨가면 表가 陽虛 상태가 되어 頭眩이 생긴다고 하였다. 汗下法을 쓴 뒤에 眩冒가 생기는 것은 陽虛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少陰病 陰竭陽脫證에서 眩은 극도로 虛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하였다. 眩暈은 대개 陰虛, 血虛인 경우가 많으며, 肥人의 경우 痰症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대개 眩暈은 天麻가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고 하였다.

## (2) 病證

少陽病에 表邪가 傳裏하여 表中陽虛로 생긴 頭眩에는 小柴胡湯에 黃芪, 川芎, 天麻를 君藥으로 하여 쓰라고 하였고, 또한 少陽病에 嘔, 口苦, 寒熱, 頭眩 등이 나타나는 경우엔 小柴胡湯에 川芎, 天麻를 加味하여 쓰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少陽病 提綱證에 해당한다. 汗下法을 쓴 뒤에 眩冒가 생길 때는 人蔘養榮湯에 川芎, 天麻를 加味하여 쓰라고 하였다. 少陰病에 下利가 그치지 않고 頭眩, 時時自冒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人蔘四逆湯에 川芎, 天麻를 加味하여 쓰라고 하였다. 太陽病 表裏俱虛證에 眞武湯에 川芎, 天麻를 加味하여 쓰라고 하였다. 太陽病 中風으로 頭眩, 頭搖가 나타나면 羌活神朮湯에 川芎, 天麻를 加味하여 쓰라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太陽病 中風證’이라 약칭한다. 眞武湯證을 제시하였는데, 眞武湯에 川芎, 天麻를

加味하여 쓰라고 하였다. 太陽病에 2, 3회 發汗을 시킨 뒤에 땀이 과다하게 나 肉筋筋傷, 頭眩이 나타나는 경우엔 人蔘養榮湯에 蔓荊子, 炒黃柏, 川芎, 天麻를 加味하여 쓰라고 하였다. 陽明病 中風證엔 茯苓白朮甘草生薑湯에 川芎, 天麻를 加味하여 쓰라고 하였다. 誤吐下後 發汗後 虛證엔 茯苓朮甘草湯에 川芎, 天麻를 加味하여 쓰라고 하였다.

血虛로 眩暈이 생긴 경우엔 四物湯에 人蔘, 蔓荊子, 天麻를 加味하여 쓰라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血虛證’이라 약칭한다. 氣虛로 眩暈이 생긴 경우엔 四君子湯에 川芎, 當歸, 天麻를 加味하여 쓰라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氣虛證’이라 약칭한다. 伏痰으로 眩暈이 생긴 경우엔 二陳湯에 瓜蒌仁, 桔梗, 枳實, 蒼朮, 川芎, 天麻, 竹瀝, 姜汁을 加味하여 쓰라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伏痰證’이라 약칭한다. 痰火上攻로 眩暈이 생긴 경우엔 二陳湯에 酒炒黃芩, 酒炒黃連, 山梔子, 蔓荊子, 川芎, 天麻, 竹瀝, 姜汁을 加味하여 쓰라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痰火上攻證’이라 약칭한다. 陰火上衝으로 眩暈이 생긴 경우엔 四物湯에 炒黃柏, 知母, 天麻를 加味하여 쓰라고 하였다. 勞役內傷으로 眩暈이 생긴 경우엔 補中益氣湯에 蔓荊子, 天麻를 加味하여 쓰라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勞役內傷證’이라 약칭한다. 下元氣脫로 眩暈이 생긴 경우엔 人蔘養榮湯에 升麻, 川芎, 天麻를 加味하여 쓰라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下焦元氣脫證’이라 통칭한다.

## 2) 「鬱冒」

### (1) 醫論

鬱冒란 사람이 昏沈, 昏迷하여 마치 무언가 머리를 감싸는 듯한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鬱冒가 되면 통증이나 가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針이나 불과 같은 자극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少陰病 陰竭陽

脫證은 腎絶한 경우라고 하였다. 眩暈과 鬱冒는 다르다고 하였다. 眩暈은 가벼운 症이고 鬱冒는 위중한 症이라 하였다.

### (2) 病證

寒氣가 虛한 틈을 타고 침입하여 鬱冒가 생긴 경우는 四逆湯에 人蔘, 當歸, 桂枝, 川芎, 黃芪, 天麻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寒氣乘虛證’이라 약칭한다. 太陽病 表裏俱虛證를 제시하였는데, 계속 땀이 나지 않아 병이 풀리지 않으면 人蔘三白湯에 川芎, 當歸, 天麻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少陰病 陰竭陽脫證을 제시하였다. 產後血虛證을 제시하였는데, 加味四物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產後惡露가 남아 上衝하여 鬱冒가 생긴 경우엔 四物湯에 紅花, 桃仁, 乾薑, 肉桂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產後惡露證’이라 약칭한다.

## 10. 『醫學入門』(1575, 李梴)

眩暈과 관련하여 「頭眩」과 「鬱冒」를 찾을 수 있었다<sup>19)</sup>.

### 1) 「頭眩」

#### (1) 醫論

汗·下法을 쓰기 전에 발생한 眩暈은 表虛證이고, 汗·下法을 쓴 뒤에 발생한 眩暈은 裏虛證이라고 하였다. 汗·下法을 쓰기 전에 발생한 眩暈 가운데, 머리와 눈이 모두 어지러운 것은 太陽少陽并病의 傷風이며, 눈만 어지러운 것은 少陽經에 風邪가 旺盛한 것이라고 하였다. 『靈樞·衛氣』를 인용하여 上虛하면 眩暈이 생긴다고 하였다. 痰火上攻으로 인한 頭眩이 가벼우면 일어날 때만 어지럽지만, 위중하면 누워있어도 어지럽다고 하였다.

## (2) 病證

太陽少陽并病의 勿下證과 少陽病 提綱證을 제시하였는데, 모두 小柴胡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陽明病 中風證에 茯苓桂甘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眞武湯證, 苓桂朮甘湯證을 제시하였다. 또한 婦人의 經水適來와 易病에 下元이 耗散되면 眩暈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痰火上攻證을 제시하였으나 처방은 밝히진 않았다.

## 2) 「鬱冒」

## (1) 醫論

「鬱」이란 氣가 퍼지지 못하는 것이고, 「冒」란 정신이 맑지 못한 것이니, 흔히 말하는 「昏迷」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寒氣가 虛를 틈타 인체에 침입하면 어떤 물건을 머리에 덮어쓴 것 같이 정신이 황홀하고 人事不省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으며, 眩暈보다 위중한 것이라고 하였다.

## (2) 病證

太陽少陽并病 勿汗證에 人蔘三白湯에 川芎, 天麻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誤吐下後 發汗後 虛證에 苓桂朮甘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厥陰病 欲解證에 理中湯, 四逆湯, 甘草乾薑湯을 골라 쓴다고 하였다. 血虛한 경우는 人蔘養榮湯에 天麻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少陰病 陰竭陽脫證, 太陽病 表裏俱虛證을 제시하였다. 痰飲證에 三生飲으로, 感濕證에 芎朮除眩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產後血虛證을 제시하였다.

## 11. 『傷寒準繩』(1604, 王肯堂)

眩暈과 관련하여 「眩」, 「鬱冒」를 찾을 수 있었다<sup>20)</sup>.

## 1) 「眩」

## (1) 醫論

傷寒에서 頭眩은 모두 汗·吐·下法으로 인하여 上焦의 元氣를 虛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眩」이란 시야가 어지럽다는 것이고, 「頭眩」이란 흔히 머리가 회전하는 듯하며 眼花가 피는 것이며, 「眩冒」란 昏冒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少陽病 提綱證과 같이 少陽病에 目眩이 나타나는 이유는, 少陽病은 邪氣가 表裏 사이에 있다가 表邪가 傳裏하면 表中이 陽虛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太陽少陽并病에 眩暈이 나타나는 이유는 虛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苓桂朮甘湯證과 誤吐下後 發汗後 虛證에서 起立性 眩暈 및 眩冒가 나타나는 이유는 陽虛 때문이라고 하였다. 『靈樞』를 인용하여 上虛하면 眩暈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眩暈이 비록 虛證이나 陽明病 中風證과 같이 風主眩의 원리에 의해 眩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 (2) 病證

苓桂朮甘湯證을 제시하였다. 誤吐下後 發汗後 虛證에 眞武湯과 苓桂朮甘湯을 제시하였다. 太陽少陽并病 勿下證, 陽明病 寒濕黃疸證을 제시하였다. 陽明病 中風證에 四逆散에 桔梗을 加味하여 쓰거나 小柴胡湯을 쓴다고 하였다. 少陽病 提綱證에 小柴胡湯에 天麻, 川芎을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少陰病 陰竭陽脫證을 제시하였다. 動氣誤汗證에 小建中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誤汗으로 인해 言亂, 目眩이 나타나면 死證이라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誤汗過劇證」이라 약칭한다. 太陽病 中風證에 羌活神朮湯에 防風, 天麻 종류를 加味하여 쓴다고 하였다.

血虛證에 四物湯에 天麻, 人蔘 종류를 加味하여 쓴다고 하였다. 痰火上攻證에 二陳湯에 酒芩, 竹瀝 종류를 加味한다고 하였다. 原文에는 「二陳湯」이 빠져있는데 『傷寒辨證』의 痰火上攻證에 의거하여



고쳤다. 勞役內傷證에 補中益氣湯에 川芎, 天麻, 防風, 蔓荊子 종류를 加味하여 쓴다고 하였다. 下焦元氣脫證에 人蔘養榮湯이나 大建中湯에 天麻를 加味하여 쓴다고 하였다.

## 2) 「鬱冒」

### (1) 醫論

鬱은鬱結되어 氣가 퍼지지 않는 것이며, ‘冒’는 무언가 덮어 쓴 듯 어지럽고 정신이 밝지 않는 것이니, ‘鬱冒’는 흔히 말하는 ‘昏迷’에 해당하며, 모두 虛한데 寒邪까지 겹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冒’에서 ‘冃’는 어린 아이나 이민족들이 머리에 쓴 모자 같은 것을 의미하므로, ‘冒’는 무언가 눈을 가려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鬱冒’는昏迷의 뜻이지鬱結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였다.

『注解傷寒論·平脈法』을 인용하여 모든 虛證에 寒氣가 타고 들어오면 厥逆이 되고鬱冒와 不仁證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는 寒氣가 虛한 틈을 타고 上部를 침입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金匱要略』 가운데 產後에 血虛한 상태에서 寒邪가 침입하면鬱冒가 생긴다는 내용을 인용하였으며, 결국鬱冒가 모두 虛寒에 속함을 지적하였다. 少陰病 陰竭陽脫證에서 ‘冒’가 나타나는 이유는 虛한 것이 극심해서 脫證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2) 病證

寒氣乘虛證에 附子湯에 人蔘을 倍로 하고 川芎, 天麻, 乾姜 종류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太陽病 表裏俱虛證을 제시하였는데, 이 때 계속 땀이 나지 않아 병이 풀리지 않으면 人蔘三白湯에 川芎, 天麻를 加味한 것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產後 血虛證, 少陰病 陰竭陽脫證, 太陽少陽并病 勿汗證, 陽明病 燥屎證, 厥陰病 欲解證, 誤吐下後 發汗後 虛證을 제시하였다.

心火가 肺를 熏蒸하여 ‘神昏’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梔子黃連黃芩湯을 쓰고, 脈이 浮하면 導赤散, 脈이 沉하면 瀉心湯, 浮沈이 모두 有力하면 導赤散과 瀉心湯을 반반씩 복용한다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心火熏肺證’이라 약칭한다.

熱病에 熱氣가 拂鬱되어 퍼지지 않는 경우에 昏迷하고 人事不省하며 脈이 微細하여 끊어지려고 하는 등 陰證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우선 大柴胡湯으로 치료하고 이후 黃連解毒湯으로 조리한다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陽病見陰脈證’이라 약칭한다.

『傷寒直格』을 인용하여, 蓄熱이 심한데 脈이 비정상적으로 沈細欲絶한 경우, 발병 초기에 陽熱이 暴甚한 경우, 兩感熱病이 심한 경우에는 解毒湯에 大承氣湯을 加味하여 攻下시킨다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蓄熱極甚證’이라 약칭한다.

혹 下法의 시기를 놓쳐 熱이 심해져 ‘昏冒’가 나타나는 경우에 급히 다시 下法을 쓰면 남아 있던 陰氣마저도 暴絶되어 죽을 수 있으므로 涼膈散이나 黃連解毒湯으로 養陰退陽시키는 방법으로 치료하라고 하였다. 이후 동일한 證에 대해 ‘失下熱極證’이라 약칭한다.

## 12. 『傷寒補天石』(1644, 戈維成)

眩暈과 관련하여 「頭眩」과 「鬱冒不仁」을 찾을 수 있었다<sup>21)</sup>.

### 1) 「頭眩」

#### (1) 醫論

少陽病은 邪氣가 半表半裏 사이에 있어 表邪가 裏部로 傳해지면 表中이 陽虛한 상태가 되어 頭眩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汗·下法을 쓴 뒤에 眩冒가 나타나는 것은 陽虛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少陰病 陰竭陽脫證에서 眩冒가 나타나는 것은 陽氣가

脫盡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風家에 頭眩이 나타나는 이유는 風이 動을 주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頭眩을 치료하는 처방에는 川芎과 天麻를 빼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 (2) 病證

少陰病 陰竭陽脫證, 太陽病 表裏俱虛證, 少陽病 提綱證, 眞武湯證, 苓桂朮甘湯證, 誤汗過劇證을 제시하였다. 陽明病 中風證에 茯苓白朮甘草生姜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 2) 「鬱冒不仁」

### (1) 醫論

‘鬱冒’는 어지럽고 가라앉으며 혼미하고 답답하여 마치 어떤 물건이 머리를 가려 막은 듯한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不仁’은 주검처럼 피부에 감각이 없어 통증, 가려움, 침이나 불의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鬱冒’와 ‘不仁’을 같은 항목에서 논한 것을 볼 때 임상에서 두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鬱冒’는 ‘眩暈’보다 위중한 것으로 서로 같지 않다고 하였다. 『傷寒全生集』의 내용을 인용하여 虛한데 寒邪가 침입하면 ‘鬱冒’와 ‘不仁’이 생긴다고 하였다.

## (2) 病證

血氣가 虛弱하여 인체를 잘 순환하지 못하면 正氣가 邪氣에 눌려 肢體에 감각이 없어지고 주검처럼 厥冷症이 생긴다고 하였는데, 이를 桂麻各半湯으로 치료하고 낫지 않으면 補中益氣湯에 姜汁을 넣은 것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혹 몸에 기름과 같은 땀이 그치지 않고 喘息, 直視, 水漿不入의 증상이 나타나면 죽는다고 하였다.

少陰脈이 뛰지 않고 腎氣가 微少해지고, 精氣·血이 胸膈으로 올라가고, 宗氣가 멎치고, 血이 心下

에 멎치고, 陽氣가 도리어 내려가 熱氣가 陰股로 들어가 陰과 함께 動하면 不仁症이 나타나 주검처럼 된다고 하였으며, 이에 期門과 巨闕에 刺鍼하기도 하는데 神醫가 아니면 刺鍼으로 치료하기 힘들다고 하였으며, 甘草乾薑湯, 桂枝芍藥湯加乾姜, 桂麻各半湯 등을 골라 쓰라고 하였다.

太陽病 表裏俱虛證를 제시하였는데, 계속 땀이 나지 않아 병이 풀리지 않으면 人蔘三白湯에 川芎, 當歸, 天麻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少陰病 陰竭陽脫證을 제시하였다. 產後血虛證에 四物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 13. 『傷寒活要』(1649, 李中梓)

眩暈과 관련하여 「頭眩」, 「眩」, 「鬱冒」를 찾을 수 있었다<sup>22)</sup>.

### 1) 「頭眩」

#### (1) 醫論

‘眩’이란 머리가 회전하는 듯하고 眼花가 피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眩’은 ‘頭眩’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汗·吐·下法을 쓰면 上焦가 허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少陽의 竅는 눈이 되고, 少陽病의 邪氣는 表裏 사이에 있는데 表邪가 裏部로 傳入하면 表中이 陽虛한 상태가 되어 ‘目眩’이 생긴다고 하였다.

#### (2) 病證

太陽病에 汗·吐·下法을 쓴 뒤에 表裏가 모두 虛해져 ‘眩冒’가 나타날 때는 眞武湯에 川芎, 天麻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는데, ‘汗吐下後’, ‘眩冒’에 근거해 볼 때 誤吐下後 發汗後 虛證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眞武湯證을 제시하였는데, 川芎과 天麻를 加味하라고 하였다. 陽明病 傷風證에 茯苓白朮甘草生姜湯에 川芎, 天麻를 加味한 것으

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少陽病에 脈이 弦數하면 小柴胡湯에 川芎, 天麻를 加味한 것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는데, 脈狀과 처방을 고려할 때 少陽病 提綱證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血虛證엔 四物芎麻湯에, 氣虛證엔 補中益氣湯에 川芎, 天麻을 加味한 것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少陰病 陰竭陽脫證, 誤汗過劇證을 제시하였다.

## 2) 「眩」

### (1) 醫論

「眩」이란 시야가 시커멓게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으로 腦髓가 空虛해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眩冒」란 「昏冒」와 같다고 하였다. 少陽病에 口苦, 咽乾, 目眩이 나타나는 이유는 邪氣가 裏部로 漸入하여 表中이 陽虛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太陽少陽并病에 「眩」이 나타나는 것은 虛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頭眩」과 「眩冒」는 모두 汗吐下法을 쓴 뒤에 陽이 虛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陽明病 中風證의 「頭眩」은 風邪때문이라고 하였다.

### (2) 病證

苓桂朮甘湯證을 제시하였다. 誤吐下後 發汗後 虛證에 眞武湯을 제시하였다. 陽明病 寒濕黃疸證에 葛根湯에 天麻, 川芎을 加味한 것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少陽病 提綱證에 小柴胡湯에 天麻, 川芎을 加味한 것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動氣誤汗證에 小建中湯을 제시하였다. 少陰病 陰竭陽脫證을 제시하였다.

## 3) 「鬱冒」

### (1) 醫論

「鬱冒」는 昏迷와 같은데, 鬱結되어 氣가 퍼지지 않으면서 무언가에 가린 듯하고 정신이 맑지 못한 것이다. 虛寒으로 鬱冒가 되지만, 攻下시켜야 할 實

證도 있다고 하였다. 血虛로 인해 「冒」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虛한 것이 심해지면 脫證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鬱冒」에는 虛證도 있고 實證도 있으니 자세히 分別하라고 하였다.

### (2) 病證

太陽病 表裏俱虛證을 제시하였는데, 만약 裏證이 풀리지 않으면 小承氣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陽明病 燥屎證, 少陰病 陰竭陽脫證, 厥陰病 欲解證을 제시하였다. 心火熏肺證에 導赤散이나 瀉心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蓄熱極甚證에 解毒湯에 大承氣湯을 加味한 것으로 攻下시키라고 하였다. 失下熱極證에 解毒湯으로 치료하라고 하였다. 血虛證으로 「厥」, 「冒」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 14. 『傷寒雜論』(1665, 張璐)

眩暈과 관련하여 「頭眩」, 「鬱冒」를 찾을 수 있었다<sup>23)</sup>.

### 1) 「頭眩」

#### (1) 醫論

「頭眩」이란 머리가 회전하는 듯하며 시야가 어두워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眩暈」, 「眩運」, 「眩冒」와 비슷하나 다르다고 하였는데, 「眩」은 시야가 어두워지는 것이며, 「暈」은 眼花가 피는 것이며, 「運」은 회전하는 것이며, 「冒」는 무언가에 가려 昏迷한 것이라고 하였다.

『靈樞』을 인용하여 「眩」은 上虛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眩」이 비록 虛症이지만, 風에 속하는 경우도 많은 것은 風이 運動을 주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頭眩은 일반적으로 眞氣가 衰奪하고 痰이 火로 인하여 움직여서 생기는 것으로, 實證으로 인하여 頭眩이 생기는 경우는 없다고 하였다. 仲景이 頭眩

을 치료하는데 溫經補陽의 처방을 쓴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하였다. 少陰病 陰竭陽脫證의 頭眩에 대해 虛한 것이 극심해져 脫證이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 (2) 病證

少陽病 提綱證에 小柴胡湯을 제시하였다. 苓桂朮甘湯證, 誤汗過劇證, 少陰病 陰竭陽脫證을 제시하였다. 陽明病 中風證에 苓桂朮甘湯證을 제시하였다.

## 2) 「鬱冒」

### (1) 醫論

鬱은 鬱結, '冒'는 昏冒를 의미하는데, 어떤 물건이 머리를 감싼 듯하고, 안개 속에 있는 듯 정신이 맑지 못한 것으로, '眩暈'과 비교하여 더욱 위중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흔히 말하는 '昏迷'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虛한데 寒邪가 침입하면 鬱冒가 생긴다고 하였다.

### (2) 病證

寒氣乘虛證에 附子湯에 乾姜을 加味한 것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太陽病 表裏俱虛證에 땀이 나지 않아 낫지 않으면 桂枝人蔘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太陽病에 증복으로 發汗시켜 陽虛로 耳聾, 叉手自冒가 나타나는 경우 함부로 小柴胡湯을 쓰면 안 되고, 大建中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叉手冒胸, 循衣摸床, 譫語, 昏冒, 人事不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陶節庵의 升陽散火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產後惡露證을 제시하였다.

## 15. 『傷寒辨證』(1678, 陳堯道)

眩暈과 관련하여 「頭眩」, 「鬱冒」를 찾을 수 있다<sup>24)</sup>.

## 1) 「頭眩」

### (1) 醫論

'眩'이란 시야가 어두워지고 머리가 회전하는 듯한 것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眩'은 '頭眩'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傷寒의 頭眩은 모두 汗·吐·下法으로 인한 것으로 上焦의 元氣를 虛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鍼經』을 인용하여 上虛하면 '眩'이 생기니 頭眩은 모두 虛에 속하므로 溫經補陽의 처방을 써야한다고 하였다. 『易老』를 인용하여 頭旋眼黑은 天麻가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고 하였다.

### (2) 病證

傷寒에 邪氣가 半表半裏에 있으면 表中의 陽氣가 虛해지면 자주 目眩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葛根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風家의 경우 頭汗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으며, 葛根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少陽病 提綱證에 小柴胡湯에 天麻, 川芎을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陽明病 中風證에 四逆散에 桔梗을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苓桂朮甘湯證을 제시하였는데, 眞武湯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多汗, 頭眩, 身搖, 發熱, 脈虛數의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에게 人蔘養榮湯에 人蔘을 倍로 넣고 天麻와 炒黃蘗을 加味하여 치료한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血虛證에 四物湯에 人蔘, 天麻 종류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伏痰證에 二陳湯에 南星, 白朮, 天麻, 川芎 종류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痰火上攻證에 二陳湯에 酒炒黃芩, 竹瀝 종류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勞役內傷證에 補中益氣湯에 川芎, 天麻 종류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下焦元氣脫證에 人蔘養榮湯이나 大建中湯에 天麻 종류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2) 「鬱冒」

(1) 醫論

「鬱」은鬱結되어 氣가 퍼지지 않는 것이고, 「冒」은 무언가 덮어 가리는 듯 어둡고 정신이 맑지 못한 것이니, 흔히 말하는 「昏迷」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모두 虛한데 寒邪가 침입한 결과라고 하였다. 昏冒, 耳聾에 溫補시키는 大劑를 쓰지 않으면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少陰病 陰竭陽脫證에 「冒」가 나타나는 것은 그 虛한 것이 극심하여 脫證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病證

寒氣乘虛證에 附子湯에 人蔘, 川芎, 天麻, 乾薑 종류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太陽病 表裏俱虛證에 땀이 나지 않아 낫지 않으면, 人蔘三白湯에 川芎, 天麻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少陰病 陰竭陽脫證을 제시하였다. 陽明病 燥屎證에 大承氣湯 대신 調胃承氣湯을 제시하였다. 蓄熱極甚證에 환자의 체질, 음식 기호, 便秘日數 등을 잘 살핀 다음, 黃連解毒湯에 承氣湯을 加味하여 攻下시킨다고 하였다. 心火熏肺證에 脈에 따라 導赤散, 瀉心湯, 導赤瀉心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傷寒 瘥後에 10일, 15일, 20일이 지나도 정신이 깨지 않고 昏沈하여 정신이 없는 것 같으며 헛소리를 하는 경우에, 邪祟나 風疾로 치료해도 낫지 않고, 혹 惡寒發熱이 없기도 하고, 瘧疾처럼 寒熱往來가 있기도 한 것은 모두 發汗이 不盡하여 餘毒이 心包絡 사이에 남아 있기 때문이니, 이때에는 知母麻黃湯을 주고 따뜻하게 덮어 약하게 땀을 내어 치료한다고 하였다.

16. 『傷寒大白』(1714, 秦之楨)

眩暈과 관련하여 「頭眩」, 「昏冒」를 찾을 수 있다<sup>25)</sup>.

1) 「頭眩」

(1) 醫論

傷寒의 頭眩과 外感風寒의 頭眩을 구별할 것을 제시하였다. 傷寒의 頭眩과 外感風寒 모두 앉거나 설 때 頭眩을 느끼지만, 傷寒의 頭眩은 침상에 가만히 누워 있을 때도 頭眩을 느낀다고 하였다. 대개 方書에서 말하는 頭眩은 陽虛를 가정하고 논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러한 경우는 모두 久病後나 汗吐下後에만 해당되는 경우라고 지적하였다. 暴病이나 汗吐下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風寒, 邪熱, 痰火, 積飲이 모두 眩暈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眞武湯證은 陽虛證이라 하였다. 汗吐下法을 쓴 뒤나 久病後에 頭眩이 나타나는 경우는 溫中扶元의 방법을 써야하니, 健中湯, 眞武湯, 苓桂朮甘湯과 같은 처방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2) 病證

少陽病 提綱證에 小柴胡湯에 川芎, 天麻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初期暴病으로 가정했을 때, 表證에 頭眩, 無汗, 脈浮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表邪發散을 위주로 치료해야하니, 邪氣가 太陽에 있으면 羌活湯, 陽明에 있으면 乾葛防風湯, 少陽에 있으면 柴胡湯으로 치료하라고 하였다. 表證이 이미 풀어지고 裏部에 熱이 있을 때는 清裏熱의 방법을 써야하니 桔梗湯이나 涼膈散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眩暈症에 嘔吐가 보이면 痰飲食滯로 인한 것이니 平胃二陳湯에 保和散을 합방하여 쓰라고 하였다.

氣虛證에는 四君子湯에 天麻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血虛有痰에는 六君子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血虛證에는 四物湯에 天麻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陰火上衝에는 知柏四物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眞武湯證, 苓桂朮甘湯證을 제시하였다. 誤吐下後 發汗後 虛證, 太陽少

陽并病 勿汗證, 陽明病 寒濕黃疸證, 陽明病 中風證을 제시하였다. 風濕邪로 인한 太陽病에 發熱, 眩暈에 羌活神朮散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 2) 「昏冒」

### (1) 醫論

昏冒는昏迷하고 정신이 깨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內傷에 昏冒에까지 이르렀으면 죽게 되는데, 傷寒이나 熱病에 昏冒에 이르면 病이 위중한 상태라고 하였다. 기존 서적에서 虛하다고 한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傷寒直格』을 인용하여, 내부의 邪熱이 극심할 경우 昏冒가 나타나는데 脈이 도리어 沈細할 수 있어 陰證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발병 초기에 陽熱이 극심하여 昏冒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으며, 兩感으로 熱이 심할 때 昏沈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으며, 下法의 시기를 놓쳐 熱이 심해져 昏冒가 나타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昏迷症을 모두 虛證으로 보아서 안 된다고 하였다. 昏冒에 解表, 清裏, 化痰, 消導 등의 方法을 쓸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癘痧, 疫毒에는 升發法, 寒涼抑遏에는 溫散法, 熱結大腸에는 下法, 汗下太過로 인한 脈空瀉脫에는 補元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 (2) 病證

太陽少陽并病 勿汗證의 ‘眩冒’와 陽明病 燥屎證의 ‘冒’는 모두 ‘昏’에 이르지 않는 ‘冒’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心火熏肺證에 脈이 浮數하여 熱이 小腸에 있으면 導赤散으로, 脈이 細數하여 心經에 있으면 瀉心湯으로, 脈이 浮沈이 모두 數하여 兩經에 모두 熱이 있으면 導赤各半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蓄熱極甚證을 제시하였는데, 처방은 제시하지 않았다. 失下熱極證에 涼膈散이나 黃連解毒湯

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 17. 『傷寒心法要訣』(1742, 吳謙)

眩暈과 관련하여 「目眩耳聾」<sup>26)</sup>을 찾을 수 있었다.

### 1) 「目眩耳聾」

#### (1) 醫論

‘目眩’이란 시야가 어두워지고 밝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 (2) 病證

汗·吐·下法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여 變逆이나 壞症이 생겨 目眩, 神昏, 言亂이 나타나면 죽는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의 誤汗過劇證과 매우 유사하다.

## 18. 『傷寒正醫錄』(1744, 邵成平)

眩暈과 관련하여 「眩」, 「鬱冒昏愎」를 찾을 수 있었다<sup>27)</sup>.

### 1) 「眩」

#### (1) 醫論

‘眩’이란 시야가 어지럽다는 것이며, ‘頭眩’이란 머리가 회전하는 듯하며 眼花가 피는 것이며, ‘眩冒’는昏迷한 것이라고 하였다. 陽明病 中風證에 頭眩이 나타나는 이유는 風邪가 眩을 주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易老』를 인용하여 頭旋目黑에 天麻가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고 하였다.

#### (2) 病證

傷寒初期에 頭眩, 眩冒가 나타나는 것은 모두 汗下法을 사용한 결과로 陽虛에 해당하고 茯苓桂枝甘草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陽明病 中風證

을 제시하였다. 少陽病 提綱證에 小柴胡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少陰病 陰竭陽脫證을 제시하였다. 血虛證에는 四物湯에 人蔘, 天麻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痰火上攻證에는 二陳湯에 酒芩, 竹瀝을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sup>1)</sup>. 陰虛로 인한 頭眩에는 補中益氣湯에 川芎, 天麻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下焦元氣脫證에는 人蔘養榮湯이나 大建中湯에 天麻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2) 「鬱冒昏憤」

(1) 醫論

‘鬱’은 鬱結되어 氣가 퍼지지 않는 것이고, ‘冒’는 무언가 덮어 가린 듯 昏迷하고 정신이 맑지 못하 것이라고 하였다. 虛한 틈을 타고 寒邪가 침입하면 ‘鬱冒不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虛寒으로 鬱冒가 생기지만, 下法을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아 熱이 極甚해져 도리어 身冷, 脈微, 昏冒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2) 病證

寒氣乘虛證에 附子湯에 人蔘을 倍로 하고 天麻, 乾姜의 종류를 加味한다고 하였다. 太陽病 表裏俱虛證에 嘔이 나지 않아 瀉지 않는 경우에 人蔘三白湯에 川芎, 天麻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陽病見陰脈證에 大柴胡湯으로 치료하고 이후 黃連解毒湯으로 조리한다고 하였다. 失下熱極證에 涼膈散이나 黃連解毒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19. 『傷寒指掌』(1796, 吳貞)

眩暈과 관련하여 「目眩」<sup>28)</sup>을 찾을 수 있었다.

1) 「目眩」

(1) 醫論

‘眩’이란 머리가 회전하는 듯하고 눈에 眼花가 피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眩’이란 ‘目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少陽經에 해당하고 木火가 上炎하기 때문이다. 汗吐下 뒤에 나타나는 것은 虛證이 확실하다고 하였다. 처방에 鈞鉤藤, 天麻, 池菊 등 熄風하는 藥材를 加味하면 좋다고 하였다.

20. 『傷寒尋源』(1850, 呂震名)

眩暈과 관련하여 「頭眩」<sup>29)</sup>을 찾을 수 있었다.

1) 「頭眩」

(1) 醫論

머리가 아픈 것은 太陽에 속하지만 頭眩은 陽明에 속한다고 하였다. 발병 초기에 頭眩이 있는 것은 風, 熱, 痰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陽明病 中風證은 風으로 인한 頭眩에 해당하고, 陽明病 寒濕黃疸證은 熱로 인한 頭眩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痰으로 인한 頭眩은 風痰으로 인한 頭眩과 熱痰으로 인한 頭眩이 있으며, 痰이 생기는 원인을 치료하라고 하였다. 少陽病이 생기면 目眩이 생기는데, 目眩은 頭眩과 구별이 있지만 陽熱이 上升한 결과라는 점에서 같다고 하였다. 太陽病에 汗下法으로 誤治한 경우는 虛證으로 인하여 冒, 頭眩이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眞武湯證과 苓桂朮甘湯證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모두 虛寒證으로 溫裏補虛하는 처방을 주어야 하고, 결국 汗下法을 잘못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少陰病 陰竭陽脫證, 誤汗過劇證은 陰氣가 枯竭되고 陽氣가 上部에서 虛脫되어 치료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1) 原文에는 ‘二陳湯이 빠져있는데 『傷寒辨證』의 痰火上攻證에 의거하여 고쳤다.

## (2) 病證

陽明病 中風證, 陽明病 寒濕黃疸證을 제시하였다. 風痰證과 熱痰證이 있다고 하였다. 眞武湯證, 苓桂朮甘湯證, 動氣誤汗證을 제시하였다. 또한 動氣가 右側에 있을 때 잘못 攻下시키면 頭眩이 생길 수 있고, 動氣가 아래에 있을 때 잘못 攻下시키면 갑자기 頭眩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少陰病 陰竭陽脫證, 誤汗過劇證을 제시하였다.

## IV. 고찰

본론의 자료를 바탕으로 定義, 病證 및 處方, 原因, 仲景『傷寒論』條文과의 비교 순으로 고찰하였다.

### 1. 定義

『傷寒明理論』, 『傷寒緒論』에서는 ‘眊’는 ‘시야에 이물질이 어긋거리는 것(眼花)’이고, ‘眩’은 ‘시야가 어두워지는 것(眼黑)’이며, ‘運’은 ‘머리가 회전하는 듯한 것(運轉 혹은 頭旋)’이고, ‘冒’는 ‘정신이 혼미한 것(昏迷 혹은 昏冒)’이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定義를 고찰해 보았다.

#### 1) 眩

‘眩’은 기본적으로 ‘시야가 어두워지는 것(眼黑)’을 말하는데, 『傷寒準繩』, 『傷寒正醫錄』에서는 ‘시야가 어지러운 것(目無常主)’라 하였다. 종합해 보면 ‘眩’은 ‘眼黑’과 ‘目無常主’의 개념이 합해진 것으로 ‘시야가 어둡거나 어지러운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서양의학적으로는 두면부 혈류의 감소에 의한 시각 저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傷寒括要』나 『傷寒辨證』에서는 ‘頭眩’을 축약하여 ‘眩’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目眩

『傷寒心法要訣』에서는 ‘目眩’에 대해 ‘시야가 어두워지고 밝지 않는 것(目黑不明)’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目眩’은 앞의 ‘眩’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傷寒指掌』에서 ‘目眩’에 대해 머리가 회전하는 듯하고 눈에 眼花가 피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頭眩의 定義를 잘못 삽입한 것으로 사료된다.

#### 3) 頭眩

‘頭眩’에 대해 『傷寒準繩』, 『傷寒括要』, 『傷寒正醫錄』에서는 ‘머리가 회전하는 듯하며 眼花가 피는 것(頭旋眼花)’이라고 하였으며, 『傷寒緒論』, 『傷寒辨證』에서는 ‘머리가 회전하는 듯하며 시야가 어두워지는 것(頭旋眼黑)’이라고 하였다. 종합해 보면, ‘頭眩’은 ‘頭旋’, ‘眼花’, ‘眼黑’ 3가지 定義가 합해진 것으로 ‘머리가 회전하는 듯하며 시야에 이물질이 아른거리거나 어두워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서양의학적으로는 시야이상과 평형감각 이상이 함께 동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鬱冒

『傷寒明理論』, 『傷寒治例』, 『醫學入門』, 『傷寒準繩』, 『傷寒括要』, 『傷寒緒論』, 『傷寒辨證』, 『傷寒正醫錄』에서 ‘鬱’은 ‘氣가 퍼지지 못하는 것’, ‘冒’는 ‘무언가 덮어 쓴 듯 정신이 맑지 못한 것’을 의미하므로, ‘鬱冒’란 흔히 말하는 ‘昏迷’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종합하면 ‘鬱冒’란 ‘昏迷’의 개념으로 ‘머리에 무언가 덮어 쓴 듯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서양의학적으로 대뇌의 의식 관장 영역의 혈류 감소에 의한 의식 저하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서적에서 ‘鬱冒’라는 病名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상한문헌에서는 ‘鬱冒’와 약간 다른 표



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傷寒百證歌』에서는 ‘冒悶’, 『傷寒補天石』에서는 ‘鬱冒不仁’, 『傷寒大白』에서는 ‘昏冒’, 『傷寒正醫錄』에서는 ‘鬱冒昏憤’라 하였다. 또한 『仁齋傷寒類書』에서는 단순히 ‘冒’라고도 하였다. 이들은 모두 ‘鬱冒’의 개념에 ‘胸悶’, ‘不仁’, ‘昏憤’의 개념을 강조하였을 뿐, 目次 아래 病證을 살펴보면 모두 ‘鬱冒’의 病證을 똑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冒悶’, ‘鬱冒不仁’, ‘鬱冒昏憤’, ‘昏冒’는 모두 ‘鬱冒’의 異名임을 알 수 있다.

### 5) 기타

『仁齋傷寒類書』에서는 ‘眩’과 ‘冒’는 비슷하지만 ‘眩’은 그 정도가 가벼운 것이고, ‘冒’는 그 정도가 심한 것이라고 하였다. 『醫學入門』, 『傷寒補天石』, 『傷寒緒論』에서도 ‘鬱冒’가 ‘頭眩’보다 위중한 것이라고 하였다. 『仁齋傷寒類書』에서는 ‘眩’과 ‘冒’를 함께 묶어 ‘冒眩’이란 목차 아래에서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醫學入門』과 『傷寒緒論』에서는 頭眩 목차 뒤에 바로 鬱冒를 배치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頭眩과 鬱冒는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증상으로 볼 수 있고, 頭眩이 심해지면 鬱冒와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眩冒’는 ‘眼黑’과 ‘昏迷’의 개념이 합해진 것으로 ‘시야가 어두워지고 정신이 혼미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의식의 저하가 나타나므로 ‘鬱冒’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眩冒’는 각 문헌에서 『傷寒準繩』의 「眩」, 『傷寒括要』의 「頭眩」, 『傷寒緒論』의 「頭眩」, 『傷寒正醫錄』의 「眩」의 醫論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때, ‘眩冒’는 ‘鬱冒’보다 ‘頭眩’에 가까운 病症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輕重 차원에서 논의해 보면 ‘眩’과 ‘目眩’보다 ‘頭眩’이 重症이며, ‘頭眩’보다 ‘眩冒’이 重症이며, ‘眩冒’보다 ‘鬱冒’가 重症이라 할 수 있다.

한편 『醫學入門』에서는 痰火上攻으로 인한 頭眩에, 병이 가벼우면 일어설 때 頭眩을 느끼지만, 병이 위중하면 누워있을 때도 頭眩을 느낀다고 하였다. 『傷寒大白』에서는 傷寒頭眩과 外感風寒의 頭眩을 구별할 것을 제시하였다. 傷寒頭眩과 外感風寒의 頭眩은 모두 앉거나 일어 설 때 頭眩을 느끼지만, 傷寒의 頭眩은 침상에 가만히 누워 있을 때도 頭眩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세에 따른 頭眩을 진단하는 방법은 그 쓰임새는 다소 다르지만, 누워 있을 때 頭眩을 느끼는 경우가 일어나거나 앉을 때 頭眩을 느끼는 경우보다 病勢가 위중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內傷, 外感, 傷寒 각각에서의 頭眩의 발현 특징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2. 病證 및 處方

病證 및 處方을 비교하기 위해 각 病證이 頭眩과 鬱冒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다. 살펴보기 앞서 病證 구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사전 제외하였는데, 『仁齋傷寒類書』은 頭眩과 鬱冒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논의하였으므로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傷寒治例』의 「鬱冒」에서 ‘吐下法을 쓴 뒤에 매우 虛해졌는데 다시 심하게 發汗시킨 경우’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仲景 『傷寒論』의 “傷寒大吐大下之, 極虛, 復極汗者, 其人外氣怫鬱, 復與之水, 以發其汗, 因得嘔. 所以然者, 胃中寒冷故也.”<sup>9)</sup>를 인용한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것은 ‘怫鬱’을 ‘鬱冒’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怫鬱’은 무언가 머리를 감싸는 증상이므로 ‘鬱冒’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傷寒緒論』의 「鬱冒」에서 ‘太陽病에 증복으로 發汗시켜 陽虛로 耳聾, 叉手自冒가 나타나는 경우’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仲景 『傷寒論』의 “未持脈時, 病人手叉自冒心, 師因教試令

效, 而不效者, 此必兩耳聾無聞也. 所以然者, 以重發汗, 虛故如此. 發汗後, 飲水多必喘, 以水灌之亦喘.”를 인용한 것이다<sup>9)</sup>. 여기서 언급한 것은 ‘叉手自冒心’을鬱冒로 인식하였기 때문인데, ‘叉手自冒心’은 손으로 가슴을 감싸는 증상이므로 ‘鬱冒’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역시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頭眩인지 鬱冒인지 모호한 경우는 우선 이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傷寒大白·鬱冒』의 太陽少陽并病 勿汗證과 陽明病 燥屎證 두 病證의 경우, 위치상 鬱冒에 배속되어 있지만, 秦之楨은 이 두 病證이 ‘昏’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鬱冒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鬱冒보다 심하지 않는 경우는 頭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후 이 두 病證은 鬱冒에 배속시키지 않고 頭眩에 배속시켰다.

본문에서 등장한 病證들을 서로 비교하여 2회 이상 출현한 病證은 총 31개로 조사되었다. 이상 31개 病證에 대해 문헌별로 頭眩과 鬱冒 중 어디에 속하는지 조사하였다.

太陽少陽并病 勿下證, 少陽病 提綱證, 苓桂朮甘湯證, 眞武湯證, 陽明病 寒濕黃疸證, 陽明病 中風證, 動氣誤汗證, 太陽病 中風證, 氣虛證, 伏痰證, 痰火上攻證, 陰火上衝證, 勞役內傷證, 下焦元氣脫證, 誤汗過劇證 총 15개의 病證은 모든 문헌에서 頭眩에 배속하고 있었다.

厥陰病 欲解證, 產後血虛證, 產後惡露證, 痰飲證, 感濕證, 寒氣乘虛證, 心火熏肺證, 陽病見陰脈證, 蓄熱極甚證, 失下熱極證 총 10개의 病證 모든 문헌에서 鬱冒에 배속하고 있었다.

少陰病 陰竭陽脫證, 太陽少陽并病 勿汗證, 誤吐下後 發汗後 虛證, 太陽病 表裏俱虛證, 陽明病 燥屎證, 血虛證 총 6개 病證은 頭眩에 배속되기도 하고 鬱冒에 배속되기도 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頭眩에만 속하는 경우, 鬱冒에만 속하는 경우, 頭眩인지 鬱冒인지 모호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서는 나누어진 세 분야에 따라

각각의 처방을 비교 연구하였다.

### 1) 頭眩에만 속하는 경우

太陽少陽并病 勿下證은 총 4회 출현하였으며, 醫學入門에서 小柴胡湯을 제시한 것 외에는 별다른 처방은 제시되지 않았다. 少陽病 提綱證은 총 11회 출현하였으며, 대부분의 서적에서 小柴胡湯을 제시하였다. 苓桂朮甘湯證은 총 11회 출현하였으며, 『傷寒辨證』에서 眞武湯도 제시하였으나 대부분의 서적에서 苓桂朮甘湯을 제시하였다. 眞武湯證은 총 10회 출현하였으며, 대부분의 서적에서 眞武湯을 제시하였다. 陽明病 寒濕黃疸證은 총 4회 출현하였으며, 『傷寒括要』에서 葛根湯에 天麻, 川芎을 加味한 것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陽明病 中風證은 총 13회 출현하였으며, 茯苓桂枝湯, 四逆散加味, 小柴胡湯, 苓桂朮甘湯 등 다양한 異見이 있었으나 茯苓白朮甘草湯이나 여기에 川芎, 天麻를 加味한 것으로 치료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상 6개의 病證은 仲景『傷寒論』의 條文을 직접 인용한 것이다.

動氣誤汗證은 총 5회 출현하였으며, 『活人書』 이후에는 防風白朮牡蠣散을 먼저 투여한 다음 小建中湯이나 黃耆健中湯을 투여하는 방식의 치료가 제시되었으나, 『傷寒準繩』 이후에는 小建中湯만을 투여하는 방식의 치료가 제시되었다. 또한 『傷寒尋源』 이전에는 腹部 左側 動氣의 誤汗證만 언급하였으나, 『傷寒尋源』 이후에는 腹部 右側 및 下部 動氣에 誤下證에도 頭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太陽病 中風證은 총 2회 출현하였으며, 羌活神朮湯에 川芎, 天麻, 防風 등을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氣虛證은 총 3회 출현하였으며, 四君子湯에 川芎, 天麻 등을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는데, 『傷寒括要』에서는 補中益氣湯에 川芎, 天麻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伏痰證은 총 2회 출현하였으며, 二陳湯에 川芎, 天麻 등을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痰火上攻證은 총 5회 출현하였으며, 二陳湯에 酒炒黃芩, 竹瀝 등을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陰火上衝證은 총 2회 출현하였으며, 四物湯에 炒黃柏, 知母, 天麻를 加味하여 치료하거나 知柏四物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는데, 四物湯에 黃柏, 知母를 加味한 것이 바로 知柏四物湯

이다. 勞役內傷證은 총 3회 출현하였으며, 補中益氣湯에 川芎, 天麻, 防風, 蔓荊子 등을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下焦元氣脫證은 총 4회 출현하였는데, 人蔘養榮湯이나 大建中湯에 天麻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誤汗過劇證은 총 7회 출현하였는데, 치료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Table 1. 頭眩 배속 病證의 處方 현황

病證 書名	太陽少陽并病勿下證	少陽病提綱證	苓桂朮甘湯證	眞武湯證	陽明病寒濕黃疸證	陽明病中風證	動氣誤汗證	太陽病中風證	氣虛證	伏痰證	痰火上攻證	陰火上衝	勞役內傷證	下焦元氣脫證	誤汗過劇證	
活人書			苓桂朮甘湯	眞武湯			防風白朮牡蠣散 小建中湯									
傷寒百問歌			苓桂朮甘湯	眞武湯			防風白朮牡蠣散 黃耆建中湯									
傷寒明理論	○	○	○			○										
傷寒治例	○			眞武湯		○										
傷寒明理論續論		小柴胡湯		眞武湯		茯苓白朮甘草生薑湯										
傷寒全生集		小柴胡湯加味		眞武湯加味		茯苓白朮甘草生薑湯加味		羌活神朮湯加味	四君子湯加味	二陳湯加味	二陳湯加味	四物湯加味	補中益氣湯加味	人蔘養榮湯加味		
醫學入門	小柴胡湯	小柴胡湯	苓桂朮甘湯	眞武湯		茯苓桂朮湯					○					
傷寒準繩	○	小柴胡湯加味	苓桂朮甘湯		○	四逆散加味, 小柴胡湯	小建中湯	羌活神朮湯加味			二陳湯加味		補中益氣湯加味	人蔘養榮湯加味 大建中湯加味		○
傷寒補天石		○	苓桂朮甘湯	眞武湯		茯苓白朮甘草生薑湯										○
傷寒括要		小柴胡湯, 小柴胡湯加味	苓桂朮甘湯	眞武湯加味	葛根湯加味	茯苓白朮甘草生薑湯加味	小建中湯		補中益氣湯加味							○
傷寒緒論		小柴胡湯	苓桂朮甘湯			苓桂朮甘湯										○
傷寒辨證		小柴胡湯加味	苓桂朮甘湯, 眞武湯			四逆散加味				二陳湯加味	二陳湯加味		補中益氣湯加味	人蔘養榮湯加味 大建中湯加味		
傷寒大白		小柴胡湯	苓桂朮甘湯	眞武湯	○	○			四君子湯加味				知柏四物湯			
傷寒心法要訣																○
傷寒正醫錄		小柴胡湯				○					二陳湯加味			人蔘養榮湯加味 大建中湯加味		
傷寒尋源			苓桂朮甘湯	眞武湯	○	○	○									○
출현빈도	4	11	11	10	4	13	5	2	3	2	5	2	3	4		6
비고	仲景『傷寒論』을 직접 인용한 경우						仲景『傷寒論』을 인용하지 않은 경우									

이상 9개의 病證은 仲景『傷寒論』의 條文을 인용하지 않았으며, 주로 內傷疾患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7개의 病證은 『傷寒全生集』에서 최초로 추가되어 後代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실은 證으로 분류한 傷寒書에서 內傷疾患을 함께 논의하기 시작한 醫家가 바로 陶節庵임을 말해준다.

處方이 언급되지 않고 病證만 언급된 경우 ‘○’로 표시하였다. 處方 뒤의 加味藥物들은 모두 ‘加味’라는 용어로 약칭하였다. 이상 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1>로 정리하였다.

2) 鬱冒에만 속하는 경우

厥陰病 欲解證은 총 4회 출현하였으며, 理中湯,

四逆湯, 甘草乾薑湯에서 골라 치료한다고 하였다. 產後 血虛證은 총 5회 출현하였으며, 四物湯이나 加味四物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產後惡露證은 총 2회 출현하였으며, 四物湯에 紅花, 桃仁, 乾薑, 肉桂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痰飲證은 1회 출현하였으며, 三生飲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感濕證은 1회 출현하였으며, 芎朮除眩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寒氣乘虛證은 5회 출현하였으며, 附子湯에 人蔘, 乾姜, 川芎, 天麻 등을 加味하여 치료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心火熏肺證은 총 4회 출현하였으며, 導赤散이나 瀉心湯을 활용하여 치료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陽病見陰脈證은 총 2회 출현하였으며, 大柴胡湯으로 치료한다

Table 2. 鬱冒 배속 病證의 處方 현황

病證 書名	厥陰病 欲解證	產後 血虛證	產後 惡露證	痰飲證	感濕證	寒氣 乘虛證	心火熏肺證	陽病見陰 脈證	蓄熱極甚證	失下熱極證
傷寒百證歌	○									
傷寒明理論		○								
仁齋傷寒類 書	理中湯, 四逆湯, 甘草乾薑湯	○		三生飲	芎朮除 眩湯					
傷寒治例										
傷寒全生集		加味四 物湯	四物湯 加味			四逆湯 加味				
醫學入門	理中湯, 四逆湯, 甘草乾薑湯	○		三生飲	芎朮除 眩湯					
傷寒準繩	○	○				附子湯 加味	梔子黃連黃 芩湯	大柴胡湯	解毒湯合 大承氣湯	涼膈散, 黃連解毒湯
傷寒補天石		四物湯								
傷寒括要	○						導赤散, 瀉心湯		大承氣湯 加味	解毒湯
傷寒緒論			○			○				
傷寒辨證						附子湯 加味	導赤散, 瀉心湯, 導赤瀉心湯		黃連解毒湯 合承氣湯	
傷寒大白							導赤散, 瀉心湯, 導赤各半湯		○	涼膈散, 黃連解毒湯
傷寒正醫錄						附子湯 加味		大柴胡湯		涼膈散, 黃連解毒湯
출현빈도	5	5	2	1	1	5	4	2	4	4
비고	仲景『傷寒論』을 직접 인용한 경우		仲景『傷寒論』을 인용하지 않은 경우							

고 하였다. 蓄熱極甚證은 총 4회 출현하였으며, 黃連解毒湯에 大承氣湯을 합방하여 치료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失下熱極證은 총 4회 출현하였으며, 涼膈散이나 黃連解毒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病證들 가운데 厥陰病 欲解證만이 仲景『傷寒論』의 條文을 인용하였다.

이상 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2>로 정리하였다.

3) 頭眩인지 鬱冒인지 모호한 경우

少陰病 陰竭陽脫證은 頭眩에서 7회, 鬱冒에서

7회 출현하였다. 少陰病 陰竭陽脫證은 仲景도 死證이라 밝혔듯이 처방이 제시된 경우가 드물었다. 太陽少陽并病 勿汗證은 頭眩에서 2회, 鬱冒에서 4회 출현하였다. 처방이 제시된 경우가 드물었는데, 『醫學入門』에서 人蔘三白湯에 川芎, 天麻를 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誤吐下後 發汗後 虛證은 頭眩에서 6회, 鬱冒에서 3회 출현하였다. 苓桂朮甘湯이나 眞武湯으로 치료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太陽病 表裏俱虛證은 頭眩에서 4회, 鬱冒에서 10회 출현하였다. 人蔘三白湯에 川芎, 天麻를 加味하여 치료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陽明病 燥

Table 3. 頭眩인지 鬱冒인지 모호한 病證의 處方 현황

病證 分類 書名	少陰病 陰竭陽脫證		太陽少陽并病 勿汗證		誤吐下後 發汗後 虛證		太陽病 表裏俱虛證		陽明病 燥屎證		血虛證	
	頭眩	鬱冒	頭眩	鬱冒	頭眩	鬱冒	頭眩	鬱冒	頭眩	鬱冒	頭眩	鬱冒
傷寒百證歌				○		○						
傷寒明理論		○	○		○			○				
傷寒治例				○			○		○			
傷寒明理續論	○				苓桂朮甘湯 瓜藹湯		○					
傷寒全生集		○			苓桂朮甘湯 加味		眞武湯加 味	人蔘三白 湯加味			四物湯加 味	
醫學入門		○		人蔘三白 湯加味		苓桂朮甘 湯		○				人蔘養榮 湯加味
傷寒準繩	○	○		○	眞武湯, 苓桂朮甘湯			○	人蔘三白 湯加味		大承氣 湯	四物湯加 味
傷寒補天石	○	○					○	人蔘三白 湯加味				
傷寒括要	○	○			眞武湯				小承氣湯		大承氣 湯	四物芎麻 湯加味
傷寒緒論	○								桂枝人蔘 湯			
傷寒辨證		○							人蔘三白 湯加味		調胃承 氣湯	四物湯加 味
傷寒大白			○		○					○		四物湯加 味
傷寒心法要訣												
傷寒正醫錄	○								人蔘三白 湯加味			四物湯加 味
傷寒尋源	○											
출현빈도	7	7	2	4	6	3	4	10	2	3	7	2
비고	仲景『傷寒論』을 직접 인용한 경우										仲景『傷寒論』을 인용하지 않은 경우	

尿證은 頭眩에서 2회, 鬱冒에서 3회 출현하였다. 大承氣湯이나 調胃承氣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血虛證은 頭眩에서 7회, 鬱冒에서 6회 출현하였다. 四物湯에 人蔘, 天麻 등을 加味하여 치료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상 6개의 病證 가운데 血虛證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병증은 仲景『傷寒論』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6개 病證의 처방을 분석한 결과를 아래 <Table 3>으로 정리하였다.

頭眩인지 鬱冒인지 모호한 病證에 대해 어디에 속하는지 가능해 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頭眩과 鬱冒의 原因, 處方, 출현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재분류하였다. 少陰病 陰竭陽脫證은 下利가 그치고 頭眩과 鬱冒이 나타는 死證으로, 下利가 그치는 것은 陰液이 고갈되었기 때문이고 頭眩이 나타나는 것은 陽氣가 脫盡되었기 때문이다<sup>9)</sup>. 頭眩보다 위중한 것이 鬱冒이므로, 이 病證은 頭眩보다 鬱冒에 배속시키는 것이 옳다. 太陽少陽并病 勿汗證은 頭眩보다 鬱冒에 출현한 빈도가 높으므로 鬱冒에 배속시키는 것이 옳다. 誤吐下後 發汗後 虛證은 鬱冒보다 頭眩에 출현한 빈도가 높은데다가, 제시된 대표 처방인 苓桂朮甘湯과 眞武湯이 汗吐下後에 陽虛로 이난 頭眩에 쓰인다는 점에 근거해 볼 때, 이 病證은 鬱冒보다 頭眩에 배속시키는 것이 옳다. 太陽病 表裏俱虛證은 頭眩보다 鬱冒에 출현한 빈도가 매우 높으므로, 이 病證은 鬱冒에 배속시키는 것이 옳다. 陽明病 燥屎證은 頭眩보다 鬱冒에 출현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仲景『傷寒論』에서 陽明病에 燥屎가 있으면 昏迷와 유사한 譫語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病證은 實證의 鬱冒에 배속시키는 것이 옳다. 血虛證은 鬱冒보다 頭眩에 출현한 빈도가 매우 높고, 『傷寒全生集』에서 頭眩은 대개 血虛나 陰虛로 인한 경우가 많다고 한 점에 근거해 볼 때, 이 病證은 頭眩에 배속시키는 것이 옳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31개의 病證을 재분류하면, 太陽少陽并病 勿下證, 少陽病 提綱證, 苓桂朮甘湯證, 眞武湯證, 陽明病 寒濕黃疸證, 陽明病 中風證, 動氣誤汗證, 太陽病 中風證, 氣虛證, 伏痰證, 痰火上攻證, 陰火上衝證, 勞役內傷證, 下焦元氣脫證, 誤汗過劇證, 誤吐下後 發汗後 虛證, 血虛證 총 17개 病證은 '頭眩'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厥陰病 欲解證, 產後血虛證, 產後惡露證, 痰飲證, 感濕證, 寒氣乘虛證, 心火熏肺證, 陽病見陰脈證, 蓄熱極甚證, 失下熱極證, 少陰病 陰竭陽脫證, 太陽少陽并病 勿汗證, 太陽病 表裏俱虛證, 陽明病 燥屎證, 血虛證 총 14개 病證은 '鬱冒'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仲景『傷寒論』의 條文에 나타난 증상의 의미를 되짚어보면, 太陽少陽并病 勿下證의 '眩', 少陽病 提綱證의 '目眩', 苓桂朮甘湯證의 '頭眩', 眞武湯證의 '頭眩', 陽明病 寒濕黃疸證의 '頭眩', 陽明病 中風證의 '頭眩', 誤吐下後 發汗後 虛證의 '眩冒'은 모두 '頭眩'에 포함된다. 厥陰病 欲解證의 '鬱冒', 少陰病 陰竭陽脫證의 '冒', 太陽少陽并病 勿汗證의 '眩冒', 太陽病 表裏俱虛證의 '冒', 陽明病 燥屎證의 '冒'은 모두 '鬱冒'에 포함된다. 이를 살펴보면 仲景『傷寒論』의 條文에서 '眩', '目眩'이란 용어가 들어간 증상은 대체로 '頭眩'에 속함을 알 수 있으며, '冒'가 들어간 증상은 대체로 '鬱冒'에 속함을 알 수 있다. 다만 '眩冒'은 '頭眩'에 포함되기도하고 '鬱冒'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는 앞서 定義에서 살펴보았듯이 '眩冒'가 '眩(眼黑)'과 '冒(昏迷)'의 복합 개념이므로 이에 대한 醫家들의 견해가 분분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 3. 原因

#### 1) 頭眩

『仁齋傷寒類書』, 『傷寒治例』, 『醫學入門』, 『傷

寒緒論』, 『傷寒辨證』 등 많은 서적에서 『靈樞·衛氣』를 인용하여 上虛하면 頭眩이 생긴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上虛’는 經脈의 標部의 기운이 虛한 것을 말하며 經脈의 標部로 淸陽의 기운이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眩’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sup>30)</sup>.

『傷寒治例』, 『傷寒明理論』, 『傷寒全生集』, 『傷寒補天石』에서 汗·吐·下法을 쓴 뒤에 나타나는 頭眩의 원인은 陽虛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傷寒括要』, 『傷寒辨證』, 『傷寒準繩』에서는 汗·吐·下法을 쓴 뒤에 나타나는 頭眩의 원인은 上焦元氣가 虛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病證으로 따지면 苓桂朮甘湯證, 眞武湯證, 誤吐下後 發汗後 虛證, 動氣 誤汗證, 誤汗過劇證이 이에 해당한다.

『傷寒明理論』, 『傷寒全生集』, 『傷寒準繩』 등에서 少陽病에 半表半裏의 邪氣가 裏部로 傳해지면 表部의 陽氣가 虛해져서 頭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病證으로 따지면 少陽病 提綱證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傷寒明理論』, 『傷寒補天石』, 『傷寒緒論』에서는 風邪가 ‘動’을 주관하기 때문에 風病에 걸리면 頭眩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病證으로 따지면 陽明病 中風證과 太陽病 中風證이 이에 해당한다.

『醫學入門』에서는 頭眩을 汗下前과 汗下後로 나누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傷寒大白』에 이르러서는 좀 더 자세히 논의하였는데, 久病이나 汗吐下後의 頭眩은 陽虛에 속하고, 暴病이나 汗吐下前의 頭眩은 風寒, 邪熱, 痰火, 積陰에 속한다고 하였다. 『傷寒尋源』에서도 傷寒病 初期에 나타나는 頭眩은 風, 熱, 痰으로 인한 경우라고 하였다. 熱로 인한 頭眩으로는 陽明病 寒濕黃疸證이 있으며, 痰으로 인한 頭眩은 伏痰證, 痰火上攻證이 있다.

『傷寒全生集』에서는 仲景『傷寒論』의 條文을 벗어나 여러 內傷要因도 언급하기 시작하여, 氣虛, 伏痰, 痰火, 陰火, 勞役, 下焦元氣脫로 인해 頭眩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後代 『傷寒準繩

』, 『傷寒辨證』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傷寒全生集』에서는 頭眩이 肥人의 경우 痰으로 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체질적인 요인도 언급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陶節庵은 內傷과 外感, 體質까지 포괄하여 傷寒에서 논했음을 알 수 있다.

## 2) 鬱冒

『傷寒明理論』, 『仁齋傷寒類書』, 『傷寒治例』, 『醫學入門』, 『傷寒準繩』, 『傷寒補天石』, 『傷寒緒論』 등 많은 서적에서 虛證이 극심해져 寒邪가 침입하면 鬱冒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注解傷寒論·平脈法』의 “諸乘寒者, 則爲厥, 鬱冒不仁”<sup>31)</sup>에서 인용한 것이다. 『傷寒明理論』, 『仁齋傷寒類書』, 『傷寒準繩』 등에서는 產後 血虛로 인해 鬱冒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傷寒準繩』, 『傷寒括要』, 『傷寒辨證』에서는 少陰證 陰竭陽脫證에 대해 虛極脫證으로 鬱冒가 생겼다고 하였다. 이처럼 많은 의가들이 鬱冒의 원인은 虛寒이라고 주장하였다.

『傷寒準繩』에서는 王好古나 劉河濶의 글을 인용하여 虛寒證뿐만 아니라 心火熏肺證, 陽病見陰脈證, 蓄熱極甚證, 失下熱極證과 같은 實證에도 鬱冒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傷寒準繩』 이후로는 鬱冒의 원인을 虛寒뿐만 아니라 實證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傷寒大白』에 이르러서는 昏迷에 이르지 않는 것은 鬱冒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鬱冒의 원인이 虛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하였다.

## V. 결론

1. 症으로 분류한 상한문헌에서 眩暈은 크게 ‘頭眩’과 ‘鬱冒’ 두 가지 目次에서 찾을 수 있었다. ‘眩’, ‘目眩’은 대체로 ‘頭眩’ 目次에 포함되어

논의되었다. ‘鬱冒’는 ‘冒悶’, ‘鬱冒不仁’, ‘鬱冒昏憤’, ‘昏冒’라는 目次名를 표방하기도 하였으나, 그 내용은 큰 차이가 없었다.

2. ‘眩’은 ‘目眩’과 같은 개념으로 ‘시야가 어두워지거나 어지러워지는 것’으로 시각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頭眩’은 ‘머리가 회전하는 듯하며 시야에 이물질이 아른거리거나 어두워지는 것’으로 시각 저하 현상과 평형감각 이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鬱冒’는 ‘머리에 무언가 덮어 쓴 듯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으로 의식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3. 歷代 상한문헌의 견해를 종합 고찰한 결과, 仲景『傷寒論』에서 太陽少陽并病 勿下證의 ‘眩’, 少陽病 提綱證의 ‘目眩’, 苓桂朮甘湯證의 ‘頭眩’, 眞武湯證의 ‘頭眩’, 陽明病 寒濕黃疸證의 ‘頭眩’, 陽明病 中風證의 ‘頭眩’, 誤吐下後 發汗後 虛證의 ‘眩冒’는 모두 ‘頭眩’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厥陰病 欲解證의 ‘鬱冒’, 少陰病 陰竭陽脫證의 ‘冒’, 太陽少陽并病 勿汗證의 ‘眩冒’, 太陽病 表裏俱虛證의 ‘冒’, 陽明病 燥屎證의 ‘冒’는 모두 ‘鬱冒’의 범주에 포함시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4. 상한문헌에서 頭眩이 汗吐·下法을 시행한 뒤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陽虛, 上焦元氣虛 등 虛證이 원인이라고 하였다. 汗吐·下法을 시행하기 전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風, 熱, 痰과 같이 實證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외 氣虛, 血虛, 陰火, 勞役, 下焦元氣脫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5. 상한문헌에서 鬱冒의 원인은 虛證이 심해져 寒邪가 침입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傷寒準繩』 이후로는 心火動肺, 蓄熱極甚, 失下熱極과 같이 實證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6. 상한문헌에서는 頭眩에 苓桂朮甘湯, 眞武湯,

人蔘養榮湯, 小建中湯처럼 溫補劑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외 小柴胡湯, 茯苓白朮甘草生薑湯, 二陳湯, 四物湯 등이 활용되었으며, 전체적으로 川芎과 天麻를 加味하는 경우가 많았다.

7. 상한문헌에서는 鬱冒에 人蔘三白湯, 附子湯, 四物湯 등의 虛證을 치료하는 처방 외에도, 導赤散, 瀉心湯, 黃連解毒湯, 大承氣湯, 涼膈散 등의 實證을 치료하는 처방도 많이 사용되었다.

## 參 考 文 獻

1. 金鎮秀, 金聖勳. 眩暈의 病因病機에 關한 小考.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1998; 7(1): 465-474.
2. 송진수, 이유진, 최정화, 김종한, 박수연, 서민수. 苓桂朮甘湯 투여로 치료된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훈 환자 치험 3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10; 23(2): 210-217.
3. 박은성. 경방사용수책. 서울, 옴니허브, 2012, 50, 162.
4. 薛仁燦, 金炳卓. 眩暈에 對한 文獻의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1996; 5(1): 205-210.
5. 權貞南. 眩暈의 原因에 關한 文獻 考察. 동의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동의한의연. 1997; 1: 123-147.
6. 박은숙, 윤일지. 眩暈에 관한 文獻의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2008; 17(1): 157-166.
7. 李順保. 傷寒論板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6, 587-663.
8. 熊曼琪. 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3.
9. 김상운, 이흥규, 정현중. 상한론 증상에 근거한



-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제언.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14; 18(2) : 96, 106.
10.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한의문화사, 2000, 148, 168, 177, 243, 269, 283, 327, 331, 366, 406, 443, 497, 498.
  11. 朱肱. 朱肱龐安時醫學全書·南陽活人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66, 89.
  12. 許叔微. 許叔微醫學全書·傷寒百證歌.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25-26.
  13. 錢聞禮. 傷寒百問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0, 68.
  14. 成無已. 成無已醫學全書·傷寒明理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62, 176.
  15. 楊士瀛. 楊士瀛醫學全書·仁齋傷寒類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491.
  16. 劉純. 劉純醫學全書·傷寒治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508, 518-519.
  17. 陶節庵.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247-248.
  18. 陶節庵. 傷寒全生集. 鄭州, 中原農民出版社, 2012, 91-92, 203-204.
  19.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2007, 1138-1139.
  20. 王肯堂. 王肯堂醫學全書·傷寒準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867-868, 951-953.
  21. 戈維城. 吳中醫集醫經類·傷寒補天石. 蘇州,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93, 166-167.
  22. 李中梓. 李中梓醫學全書·傷寒括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14, 328, 329.
  23. 張璐. 張璐醫學全書·傷寒緒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744.
  24. 陳堯道. 續修四庫全書985·傷寒辨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693, 689-690.
  25. 秦之楨. 傷寒大白.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103-104, 207-208.
  26. 吳謙 等. 御纂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449.
  27. 邵成平. 傷寒正醫錄.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2, 50, 72-73.
  28. 吳貞. 傷寒指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62.
  29. 呂震名. 傷寒尋源.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2013, 217-219.
  30.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靈樞研究集成. 대구, 도서출판 청운, 2006, 1157-1158.
  31. 金善鎬. 懸吐完譯 注解傷寒論. 서울, 주민출판사, 2012, 77.

